

■ '슈퍼 땡콩' 김미현 코닝클래식 우승 순간

연장 세번째 홀 5m 버디퍼팅 '쏘~옥'...통쾌한 역전승

한때 4타까지 뒤지다 무서운뎃심...연장 돌입
개인통산 7승...한국, 올시즌 9승 최다승 타이

'슈퍼 땡콩' 김미현(29·KTF)이 연장 접전 끝에 통쾌한 역전 우승으로 시즌 두번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김미현은 17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메도우스골프장(파71·6천40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코닝 클래식 최종일 나탈리 결비스(미국)를 연장 세번째 홀 버디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결비스와 공동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미현은 한때 4타까지 뒤졌으나 후반 들어 1타도 줄이지 못한 결비스를 따라 잡아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66타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고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세번째 홀에서 5m가 넘는 먼 거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환호했다.

지난 5월 1일 진클럽스 앤드 리조트오픈을 제패하며 부활을 알렸던 김미현은 이로써 2002년에 이어 한 시즌 2차례 우승을 달성하는 '제2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혔다.

통산 7승째를 올린 김미현은 우승 상금으로 18만 달러를 받아 상금랭킹을 4위(101만 4천724달러)로 끌어 올렸고 2002년에 이었던 생애 시즌 최고 상금 104만9천993달러

경신도 가능해졌다. 김미현이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작년까지 4차례 연장전에서 1승3패로 약했던 김미현은 뒷심까지 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또 김미현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가 올해 LPGA 투어에서 따낸 승수는 9승으로 늘어나 지금까지 시즌 최다승이었던 2002년과 타이틀을 이뤘고 한번도 넘어서지 못한 시즌 두자리수 승수를 눈앞에 두게 됐다.

공동선두 김미현, 결비스에 1타차 3위 박세리의 챔피언조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선수는 결비스.

LPGA 투어에서 가장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결비스는 3번홀부터 7번홀까지 5개를 연속 버디를 몰아쳐 4타차 선두로 달아났다.

그러나 김미현도 물러서지 않았다. 8번홀(파3)과 9번홀(파4), 10번홀(파4)에서 3개의 줄 버디를 쉼없이 2타차까지 좁혀 들어간 것.

전반에 3타를 줄이며 버티던 박세리는 10번홀(파4)에서 1타를 잃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우승 경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후 경기 양상은 김미현과 결비스의 힘

겨루기로 진행됐고 김미현은 리드를 지키기 위해 소극적인 플레이로 일관한 결비스를 결국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10번홀 버디 이후 파행진을 벌이던 결비스는 16번홀(파4)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김미현에게 턱밑까지 쫓겼다.

김미현은 17번홀(파5)에서도 세번째샷을 홀 1.2m에 붙여 버디를 잡아내며 이 홀에서 겨우 파를 지킨 결비스와 공동선두에 올라섰다.

18번홀(파5)에서 다같이 2m 안팎의 버디 기회를 놓친 김미현과 결비스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홀에서 치른 연장 첫번째홀과 17번홀에서 펼친 연장 두번째홀 모두 두 선수는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해 연장전은 다시 18번홀로 넘겨졌다.

나란히 러프에서 두번째샷을 쳐야 했지만 무난하게 페어웨이로 안착시킨 둘 가운데 세번째샷은 결비스가 김미현보다 좋았다.

먼저 친 김미현의 세번째샷은 홀보다 왼쪽으로 치우쳐 5m 거리에 떨어졌지만 결비스의 어프로치는 버디 확률이 높은 홀 옆 2.7m 거리.

그렇지만 4라운드와 연장 첫홀에서 잇따라 3m 안팎의 버디 찬스를 놓쳤던 김미현은 거어코 회심의 버디 퍼트를 떨쳤다.

퍼트를 성공해야 승부를 계속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린 결비스의 버디 퍼트는 홀을 외면했고 김미현은 극적인 역전 연장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의 김미현이 17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제이미파 오웬스코닝 클래식 최종일 연장 세번째 홀에서 버디 퍼트를 먼저 성공한 뒤 우승을 예감한 듯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잇혀져 가는 김미현 되기 싫었다”

■ 김미현 인터뷰

-우승 소감은.

▲나탈리 결비스와 연장전에 들어갈 때 300~400명이 일방적으로 결비스를 응원했다. 하지만 홀을 이동할 때 비록 적지만 몇명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이겼고 트로피를 차지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

-한 때 결비스에 4타차로 뒤졌는데.
▲몇타차가 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플레이를 했고 16, 17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뒤 자신이 생겼다. 생

애 3번의 연장 승부 중 1번만 이겼지만 엔지 자신감이 있었다. 신중하게 샷을 했고 결국 연장 승부로 갈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부진했는데 올 시즌 성적 이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우승만 없었지 상위권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동계훈련량이 많았고 이제 노련미가 생겼다. 무조건 체력만 앞세워 투어를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잇혀져 가는 김미현이 되기 싫었다. 한국골프 1세대인 박세리와 내가 이대로 주저 앉기 싫었고 우리가 잘되어야 후배들도 잘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우승 다들 라이벌을 꼽으라면.

▲한국 선수들을 비롯해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내 라이벌은 '코스'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는 다행히 코스가 짧아 경기를 풀어가기가 쉬웠지만 점점 길어지고 있는 LPGA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코스와의 고독한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할 것 같다.

-하반기 목표는.
▲메이저대회다. 여태껏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다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서 맴돌곤 한다. 하반기 남은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존 센텐 존디어클래식 우승

무명의 존 센텐(호주·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과 함께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오픈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프로 15년차의 센텐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TPC(파71·6천762야드)에서 열린 존디어클래식 4라운드에서 3언더파를 쳐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로 J.P 헤이스(미국·18언더파 266타)를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139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센텐은 이번 주 열리는 브리티시오픈 출전권도 따냈다. 센텐은 또 존디어클래식에서 PGA 투어 생애 첫 승을 올린 18번째 선수가 돼 이 대회가 무명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무대임을 다시 입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등장 플레이 도마에...

존디어클래식 동반자 제프 고브

“동반선수 존중하는 빠른 플레이 배워야”

재미교포 여자골프 위성미(17·나이키골프)의 '극장 플레이'가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한국시간) 시카고 지역일간지 선타임스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클래식에서 위성미와 이를 동반 동반 플레이를 치렀던 제프 고브가 “미셀 위는 좀 더 플레이 속도를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고브는 “미셀 위는 정말 천천히 걸었다”면서 “어린 나이라는 것은 알지만 프로 선수라면 프로 선수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할 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빨리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고브는 “동반 선수를 존

중해주는 태도 역시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해 위성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고브는 “미셀 위가 2라운드에 앞서 ‘플레이를 빨리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브는 “컷 통과 자체는 어떤 성과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선수는 우승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오길비도 “프로 골퍼 선수가 해야 하는 일은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홀볼을 집어넣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신중한 플레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미셀 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도 극장 플레이로 종종 동반 선수들의 불만을 산 적이 있으며 HSBC메지클레이 챔피언십 때는 동반 선수와 단 한타도 나누지 않아 ‘침묵의 파트너’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PGA 투어 한국 선수 우승 일지

연도	우승자	우승 대회
1988	구옥희	스탠다드레지스터
1994	고우선	도레이재팬뱅크
1995	고우선	도레이재팬뱅크
		US여자오픈
1998	박세리	LPGA 챔피언십
		제이미파오웬스코닝 클래식
		지아인트클래식(4승)
	필신	스테이트파워클래식
		솔라이트클래식
1999	박세리	제이미파오웬스코닝 클래식
		삼성월드챔피언십
		페이팅클래식(4승)
	김미현	스테이트파워클래식
		벤티클래식(2승)
2000	박지은	캐시어윈랜드그린스닷컴클래식
	김미현	세이프웨이챔피언십
	박세리	유아리이프리미티비스트클래식
		통스드릭스클래식
2001	박세리	제이미파오웬스코닝 클래식
		브리티시여자오픈
		이클라 챔피언십(5승)
	박지은	오피스디포
	박희정	윌리엄스챔피언십
	박세리	LPGA 챔피언십
		오피스디포 챔피언십
		벤티클래식
2002		모빌티나먼스오브 챔피언십
		C.J.인브릿지클래식(5승)
	김미현	지아인트클래식
		웬다스 챔피언십(2승)
	박지은	시스쿼일드매지클레이 챔피언십
	박희정	빅애플클래식
	박세리	세이프웨이 챔피언십
		작블에어 챔피언십(3승)
2003	한희원	웬다스 챔피언십
		빅애플클래식(2승)
	박지은	미켈라이트
	안시현	C.J.인브릿지클래식
	박지은	니비스 챔피언십
		C.J.인브릿지클래식(2승)
2004	박세리	미켈라이트
	한희원	세이프웨이 챔피언십
	김초롱	통스드릭스클래식
	강지민	코닝클래식
	김주연	US여자오픈
	이미나	BMC 챔피언십
	장정	브리티시여자오픈
	김수연	세이프웨이 챔피언십
	한희원	오피스디포 챔피언십
	이지영	C.J.인브릿지클래식
	김초롱	미켈라이트나먼스오브 챔피언십
	김주미	SBS 오픈
	이미나	필즈오픈
	임성아	폴로리디스내추럴레티 챔피언십
	김미현	진클럽스 앤드 리조트오픈
	한희원	코닝클래식
	이선화	솔라이트클래식
	박세리	캐시어윈랜드그린스닷컴클래식
	장정	웨그먼스 PGA
	김미현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